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 신약개발지원센터 본격 가동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신년 기자간담회

작년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8.5조
美CIC에 국내 기업 입주 확대 계획
바이오 전문인 교육기관 설립 추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올해 ‘오픈에 노베이션 클럽’을 신설하고, 신약개발을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선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0년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구체적인 방안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거점을 확보한다. 미국의 ‘게임브리지 혁신 센터’(CIC)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입주를 확대하고, 컨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1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사업 구성을 통해 MIT 산업연계프로그램에도 가입, 공동연구에 참여할 계획이다.

CIC는 미국 보스턴을 중심으로 총 7개 지역에 바이오 생태계를 갖춘 최대 규모 혁신 플랫폼이다. 국내 기업 중에는 유한양행과 GC녹십자가 입주해 있

고, 보스턴 지역 전체에는 LG화학과 삼양바이오팜 등이 진출한 상태다.

원 회장은 “올해 CIC 진출을 늘리고, 컨소시엄 형태로 MIT 산업연계프로그램,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밀너 컨소시엄에도 가입해 공동 연구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거점을 확보해 회원

사들의 진출로를 넓히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클럽을 신설한다. 국내외 제약사와 바이오벤처, 학계와 산업계, 투자자 까지 모두 모여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다.

원 회장은 “새로운 연구나 기초물질을 발굴한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며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민·관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 협회는 현재 9.1%를 차지하는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일본 수준의 20% 이상까지 늘릴 계획이다.

원 회장은 “개방형 혁신의 성공은 민관 협력에 달려있다고 할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은 자생력을 키우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올해 국제윤리경영시스템 ISO37001의 도입 기업을 현재 53개에서 70개까지 확대해 윤리경영을 확고한 산업 문화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지난해 신설한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 가동을 본격화하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오는 9월 16일에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세번째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바이오산업 기술수출은 전년(5조3706억원) 대비 58.6% 확대된 8조5165억원(14건)을 달성했다. 해외 신약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신약은 23개, 유럽의약품청(EMA) 허가는 16개에 이른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한섬, 해외시장 겨냥 맞춤형 제품 개발

파리 패션위크 3회 연속 참가

한섬이 시스템·시스템옴므의 글로벌 브랜드화에 팔을 걷었다. 파리 패션위크에 3회 연속 참가하기로 했는가 하면, 해외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제품 개발 전략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은 ‘2020년 F/W 파리 패션위크’에 자사의 캐주얼 브랜드 ‘시스템·시스템옴므’가 동반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토종 패션브랜드로는 최초로 한섬의 남녀 패션브랜드가 3회 연속 참가하게 된다.

파리 패션위크는 글로벌 4대 패션쇼 중 하나로,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가 모두 참가하는 행사다. 특히, 행사 기간 패션 업체들이 전세계 유명 백화점과 패션·유통 바이어들에게 다음 시즌 출시 예정 신제품을 소개하고, 미리 판매



한섬, 2020FW 파리패션위크 글로벌 에디션 /현대백화점그룹

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패션 마켓’으로 알려져 있다.

한섬은 이번 시즌을 시작으로 해외 뮤지션, 아티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얻는 방식으로 시즌 콘셉트 전략을 짠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F, 신선한 아트웍 ‘질스튜어트 판타지’ 공개

라이프스타일 전문기업 ㈜LF가 국내 전개하는 뉴욕 감성의 컨템포러리 브랜드 ‘질스튜어트 액세서리’가 S/S 시즌 캠페인 화보를 공개했다.

2020 S/S 캠페인 ‘질스튜어트 판타지’는 절제된 세련미를 바탕으로 질스튜어트만의 미니멀 판타지를 그려낸 것이 특징이다.

브랜드 시그니처 패턴을 적용한 감각적인 신제품들과 모델의 몽환적이고 절제된 표현력이 만나 미니멀하면서도 신선한 아트웍을 탄생시켰다.

질스튜어트 액세서리에서는 ‘로젤라 프리즘’ 라인을 통해 독창적 아이덴티티가 돋보이는 신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새롭게 출시하는 트렌디한 마이크 로 사이즈 크로스백 백은 핸드폰 및 간단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사이즈로 활용도가 높다.

‘소호’ 라인은 지난 시즌 첫 선을 보인 참 장식 라벨에 로고 플레이를 더했으며, 19FW 시즌 컬러를 반영한 그린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20SS 시즌 컬러 베이지를 신규로 출시했다.

마지막으로, ‘뉴 뽀피 다이아몬드’ 라인인 질스튜어트의 시그니처인 뽀피 다이아몬드 라인을 새로운 패턴과 컬러로 리뉴얼한 20SS 버전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활용도 높은 지갑 제품을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보건사회연구

지역별로도 기대수명 2.6년 차이
“의료보장 강화만으로 해결어려워”

고소득자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기간은 저소득자보다 11년이나 긴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건강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 불평등은 소득, 사회계층, 학력, 지역 차이에 따라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건강지표인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소득계층별,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이고, 건강수명은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을 의미한다.

2010~2015년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인구의 기대수명은 85.1세, 건강수명은 72.2세였고, 소득 하위 20% 인구의 기대수명은 78.6세, 건강수명은 60.9세였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기대수명은 6년, 건강수명은 11년이나 길었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긴 지역과 가장 짧은 지역의 격차는 2.6년이었고, 건강수명은 격차는 5.3년이었다.

자살사망에서도 불평등이 드러났다. 2015년 학력에 따른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률을 보면, 65세 미만 남성 인구에서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10만명당 24.5명이 자살했지만,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는 10만명당 166.7명이 자살했다. 65세 미만 여성 인구에서도 두 집단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2.0명, 97.0명으로 차이가 컸다.

흡연율과 만성질환 역시 격차가 컸다. 2017년 국민건강통계자료에 따라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를 비교했을 때 양측의 현재 흡연율은 각각 15.9%, 26.0%였고, 우울감 경험률은 각각 9.1%, 17.4%로 고소득층의 건강 관리 수준이 훨씬 높았다.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 연구센터장은 “다양한 건강 결과와 건강 행동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뚜렷이 관찰되는데 이는 의료보장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의료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의 까다로운 기준, 노동시장 불평등, 주거 불안정, 전통적 가족 해체로 인한 건강보험 장기 체납 문제 등이 슈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세경 기자

시니어 바른먹거리 교육, 대사증후군 33% 개선

풀무원, 시니어 대상 식생활개선 사업
시니어, 43명 중 14명 정상 판정 받아

풀무원은 지난해 농촌 지역 시니어 식생활 개선 사업 ‘시니어 바른먹거리 교육’을 충북 음성군 수태리 마을과 동음리 마을 시니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43명 중 14명(32.6%)이 개선되는 등 건강지표 수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풀무원재단은 음성보건소와 함께 음성군 수태리 마을과 동음리 마을에 거주하는 시니어 64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각 5개월간 마을 밥상 제공, 식생활 및 건강생활 교육, 영양 상담, 건강기능식품 지원 등을 제

공했다.

2019년 시니어 바른먹거리 교육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시니어 중 32.6%가 교육 후 개선된 점이다. 교육 전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시니어는 모두 43명으로 교육 후 검진에서는 14명의 시니어가 정상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은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음으로 방치하면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당뇨병 발병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작년 교육을 끝까지 이수한 64명은 대사증후군 위험 인자 수치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이마트24

간편 ‘사골떡만두국 도시락’

이마트24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맞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골떡만두국 도시락을 15일 선보였다.

사골떡만두국도시락(4500원)은 떡, 손만두, 사골소스로 구성되어 소스와 뜨거운 물을 붓고レンジ업하면, 간편하게 떡만두국의 풍미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이다.

속이 꽉 찬 CJ제일제당 손만두 3개와 밥, 무 석박지로 구성된 이번 상품은, 국물 도시락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반 도시락반찬으로 들어가는 김치(25g)보다 3배 이상 많은 양(85g)을 담아내는 등 음식점에서 즐기는 듯한 떡만두국을 구현했다.

/신원선 기자